

산업동물 임상 활성화 방안

김두 교수 / 강원대학교 수의학부대학

작금의 산업동물 임상분야의 침체는 축산분야의 사육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축산물의 국가간 교역 자유화의 여파가 수의분야에 미친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에서는 1980대 초반부터 산업동물 임상 수의사들의 소동물임상으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도 10 여년 이상 젖소의 숫자가 고정되고 소고기 수입 개방의 여파로 한우 숫자의 감소로 대동물 임상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숫자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동물 임상이 활발하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산업동물 임상에서 소동물 임상으로 전환하는 수의사를 소동물 임상 분야에서 수용하였으나 최근의 소비경기의 침체로 소동물 임상의 불경기 여파로 두 분야 모두에서 동반침체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수의분야의 위축으로 직결되어 앞으로 수의분야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각 분야의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산업동물 임상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산업동물임상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며 산업동물 임

상에 종사하시는 원장님들을 비롯하여 관련된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 문제해결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I. 산업동물 임상의 현상 및 문제점

1. 축산분야와 관계

산업동물 임상분야가 직면한 문제점들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젖소와 한우의 사육 두수가 증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지난 10 여년 동안 대가축의 사육두수는 고정화 또는 감소되었고 사육농가 수도 감소되었으며 호당 사육두수는 증가되었다. 그리고 축산시설의 현대화 또는 규격화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경영 기간의 증가에 따라 축산 농민들의 가축질병 예방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자가 치료가 증가하였으며 가축의 도태도 증가하여 수의사들의 개체 질병 치료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산업동물 수의사의 수입은 자연스럽게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진료비 원가의 상승과 진료 case의 감소에 따라 수의사는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진료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거

의 수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축산농민들은 진료비가 비싸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분야와 수의분야 모두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 중의 하나인 축산물 수입의 증가는 국내 축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최근에 미국과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이 완료되면 축산업의 위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축산분야에서는 고급육 생산과 브랜드화로 대응하는 전략 등을 세우고 있으나 이 상황에서 수의분야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 산업동물 수의사들은 축산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그 전통을 이어받아 이 시점에서 산업동물 수의사들은 축산과 수의분야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또 위기극복을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는 많은 수의사들은 수입의 감소와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 때문에 소동물 임상이나 다른 업종으로 직업을 전환하였으며, 젊은 수의사들은 산업동물 임상분야가 평생을 걸고 일 할 수 있는 분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산업동물임상 분야에 새로 진입이 줄어들었다. 이러

표 1. 연도별 소 사육두수와 농가수 변화

년도	젖소		한우	
	두 수	농가 수	두 수	농가 수
1995	553,467	23,519	2,594,027	518,952
2000	543,708	13,348	1,590,020	289,714
2005	478,865	8,923	1,818,549	192,124

한 현상은 축산분야의 불만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산업동물수의사가 없어 먼 지역의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산업동물병원이 한 명 밖에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의사가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동물병원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응급진료 요청시 수의사의 부재는 농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산업동물수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 가축질병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가축방역의 사각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의사를 대체하는 방역요원으로 가축질병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산업동물 수의사의 수와 활동 영역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축산분야의 불만을 등에 업고 우수한 학생들의 유치에 사활이 걸린 대학들은 매년 수의과대학 신설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고 있으며 수의분야는 수의과대학의 신설을 막기 위하여 발전에 사용하여야 역량을 매년 소모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업동물임상에 종사하는 전국적인 수의사 숫자와 가축 수를 보면 수의사가 오히려 과잉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이렇게 산업동물 수의사 숫자가 전국적으로 과잉인 상태에서도 부족한 것 같이 인식되는 현상은 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에 적절히 존재하지 않거나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1인이 개별적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마치 전국적인 현상으로 잘 못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업수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또 하나는 일부 단위 농협이 수의사를 고용하여 동물병

표 2. 전국의 소 사육두수와 수의사 분포 (2005. 12월 기준)

시도	젖소(두)	한우(두)	수의사(명)	젖소/수의사	한우/수의사	소/수의사
서울	136	289	33	4.1	8.8	12.9
부산	765	1,491	6	127.5	248.5	376.0
대구	3,518	16,611	12	293.2	1,384.3	1,677.4
인천	4,418	15,080	8	552.3	1,885.0	2,437.3
광주	738	4,140	18	41.0	230.0	271.0
대전	153	4,677	7	21.9	668.1	690.0
울산	1,455	20,942	9	161.7	2,326.9	2,488.6
경기	186,397	168,719	184	1013.0	917.0	1,930.0
강원	18,941	138,121	54	350.8	2,557.8	2,908.6
충북	25,221	134,285	92	274.1	1,459.6	1,733.8
충남	77,569	236,999	141	550.1	1,680.8	2,260.9
전북	36,718	177,121	126	291.4	1,405.7	1,697.1
전남	36,541	274,583	133	274.7	2,064.5	2,339.2
경북	48,383	386,632	194	249.4	1,992.9	2,242.3
경남	32,601	216,303	141	231.2	1,534.1	1,765.3
제주	5,311	22,556	64	83.0	352.4	435.4
총계	478,865	1,818,549	1,222	391.9	1,488.2	1,880.0

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병원들은 동물병원의 진료 서비스 질을 높여 농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낮은 진료비로 조합원들에게 봉사하고 있어 개업 수의사들의 진료비 수가체계를 붕괴시켜 동물병원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산업동물 수의사가 이탈하게 하는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축산분야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은 동물병원들이 축산농민들이 요구하는 질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적절한 진료비로 봉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 수의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2. 동물병원 자체의 문제점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산업동물병원은 진료 건수의 감소와 동물병원 운영비의 증가로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호소하는 문제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많은 만성적인 진료비 미수금을 안고 있어 경영에 압박

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방법이 없어 개업수 의사들의 큰 애로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산업동물병원의 폐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폐업의 증가와 신규 수의사 진입의 감소는 무수의 촌의 증가를 초래하여 가축방역의 공백을 초래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국가적인 방역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산업동물임상에 종사하는 54%의 수의사들이 50세 이상으로 고령이며 불만족스러운 임상 환경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산업동물 임상의 미래 때문에 젊은 수의사들이 산업동물 임상에 진입하는 것을 꺼려 젊은 세대로의 세대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미래의 산업동물 임상이 동공화현상과 아울러 과잉상태의 졸업생의 진로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폐업하는 경험 많은 수의사의 지식과 경험들이 젊은 수의사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대동물병원의 업무처리능력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동일지역 내에 있는 대부분의 산업동물병원은 진료영역에서 특화되어 있지 못하고 개체 동물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획일적인 중복된 업무만을 시행하고 있어 동물병원 간에 과당 경쟁이 될 수 있으며 중복된 업무로 시간적인 낭비도 심하다.

주 5일제 근무 시대에 산업동물 수의사는 근무시간이 부정기적이고 1주일 7일간 하루 24시간의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육체적으로 피로상태에 있으며,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없는 실정으로 타 직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은 상태이다. 또한 퇴직금과 같은 사회적인 노후보장이 없어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과거 30년 동안 축산의 규모는 확대되고 농가당 수입은 증가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산업동물병원의 규모와 서비스 수준은 과거와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농민의 수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과거만하지 못한 점도 수의사의 직업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소동물 임상이 활성화되면서 대부분의 수의과대학의 임상교육 과정이 소동물 임상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산업동물 임상교육이 부실해져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 수의사들이 체계적인 임상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II. 대응방안

1. 권역별로 동물병원을 통합

앞에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산업동물 임상분야가 동물병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축산분야의 발전에 맞추어 함께 변화해 나가지 못하고 과거의 체제에 안주하고 있었던 결과로 생각된다.

필자는 산업동물 임상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군별로 진료 권역별 상황에 따라 1~3개의 동물병원으로 통합하여 동물병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로사정이 좋지 못하여 먼 단위로 동물병원이 분산되어 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전국의 주요 도로가 포장되어 시군 단위의 한 곳의 동물병원에서 번두리지역의 농장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동물병원의 통합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지역에서 동물병원들이 통합하여 번식관리를 비롯한 우군의 집단관리를 실시하여 동물병원 업무의 폭을 넓히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으로 동물병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있어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물병원을 통합하였으나 통합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해체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통합의 실패는 대부분의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는 수의사들이 개별적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해 온 데 적응되어 있어 통합된 동물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였으며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것에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하여 시대에 맞는 운영체계를 설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동물병원의 통합은 국가적인 계획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각 지역에서 산업동물 진료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들이 자율적인 계약에 의하여 통합하고 국가나 교육기관, 각 수의사 단체들의 수의사는 통합과정이 원활이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1) 기대효과

① 규모의 확대와 현대화로 업무능력을 향상

그동안 대부분의 산업동물병원은 1인의 수의사에 의하여 운영되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진료업무만 수행해왔으나 동물병원이 통합

되어 수의사 수가 증가되고 진료시설이 확대된다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각 수의사별로 전문영역을 키워나가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다.

② 서비스 영역의 확대

협업체제가 이루어져 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질의 향상으로 그동안 집단적 또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였던 가축의 집단건강관리가 가능해져 번식관리, 발굽질병관리, 유방염예방관리, 자축의 설사와 호흡기질병 관리, 영양관리 및 한우의 전반적인 건강관리 등 많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③ 진료 동물 영역의 확대

그동안 산업동물 수의사들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던 어류, 야생동물 등의 동물분야를 지역실정에 따라 특화하여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동물 수의사들이 도외시하였던 돼지나 닭과 같은 동물의 진료와 방역도 이 분야의 전문수의사들을 영입하거나 협동하여 소 이외의 가축질병의 방역에도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④ 체계적인 가축질병 방역 담당

그동안 산업동물병원의 위축으로 가축의 방역업무가 일부지역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1인이 운영하던 동물병원에서는 진료가 많은 경우에 방역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던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각 지역별로 동물병원이 통합되면 국가적인 가축방역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가축의 숫자에 맞게 동물병원을 신설하거나 수의사의 수를 늘려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⑤ 동물병원 운영경비 절감

그동안 산업동물병원은 개별적으로 병원 공간, 시설과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중복된 투자와 인건비 지출이 많았으나 동물병원을 통합하게 되면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새로운 병원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비용절감을 통하여 보상받게 될 것이다.

⑥ 산업동물의 집단관리에 의한 소득의 증가

통합에 따른 가장 큰 실질적인 효과는 동물병원의 서비스 분야의 확대와 업무능력의 향상에 따른 소득의 증가일 것이다. 이것은 통합에 따라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아니며 각 동물병원이 서비스 분야 확대와 업무능력 향상 및 경영혁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은 안정된 수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

산업동물병원의 업무능력 향상은 축산분야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동물병원의 통합으로 앞에서 지적하였던 축산분야의 요구들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생산단계에서 최종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⑧ 삶의 질 향상

1인이 운영하는 산업동물병원 수의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하루 24시간 대기상태에 있는 긴장감과 휴일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동물병원의 통합으로 근무하는 수의사가 늘어나면 병원의 일상적인 근무시간을 정해두고 나머지 시간에는 당직수의

사를 윤번제로 두어 수의사들이 비근무 시간을 여가와 자신의 재충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⑨ 신규 수의사 인력 흡수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 한참 일할 수 있는 30~40대의 비중이 낮고 50대 이상의 수의사가 많은 것은 현재와 같은 불안한 산업동물 임상 여건에서는 젊은 수의사들이 이 분야로 진출은 꺼리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산업동물 수의사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앞으로 현재의 축산 규모가 유지된다고 볼 때 나이가 들어 퇴진하거나 폐업하는 수의사들을 대체할 신규인력이 전국적으로 매년 60~80명 정도로 추산된다. 동물병원이 통합되면 신규 수의사의 인력 흡수뿐만 아니라 젊은 수의사들이 경험이 많은 수의사들과 함께 근무하게 됨으로 보다 탄탄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업무처리 능력이 빠른 시간 내에 향상될 것이다.

⑩ 산업동물 임상수의사 조직의 활성화 및 결속력 강화

많은 수의사가 함께 근무하게 되면 임상교육이나 수의사회 활동 등에 참여할 시간의 안배가 용이해질 것이고 수의사끼리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아져 수의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과거의 개별적인 동물병원으로 존재할 때보다 동물병원의 전국적인 결속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축산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온 축산물의 수입자유화는 축산분야의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미국과 진행되고 있는 FTA의 협상이

타결되어 미국의 축산물이 관세없이 수입이 된다 면 축산업의 붕괴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축산농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축산분야에서는 축산물 수입에 대한 반대 노력과 함께 한편에서는 수입축산물에 대한 대비책으로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대응은 여의치 않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를 비롯하여 많은 지원을 실시하여 대부분 목장들의 시설이 현대화되었으나 전반적인 질병관리는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이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지원을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주로 시설투자에 집중되었는데 이제는 축산분야에서 가장 큰 손실을 주고 있는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참고하여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하나의 예로 일본의 NOSAI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축공제사업을 들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안으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농민이 50%의 비용(두당 일정액을 부담)을 자조금 형식으로 부담하여 진료비를 포함하여 폐사축에 대한 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가축질병공제제도가 도입되면 각 지역의 통합된 동물병원은 각 시군 단위의 공제조합과 1년 단

위로 계약하여 그 지역의 가축을 대상으로 집단관리를 포함한 가축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담당하며 가축방역에 대한 업무도 실시하여 동물 질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업무를 통합된 동물병원에서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수의사는 진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목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질병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농민들은 질병관리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어 축산물의 생산성이 높아져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으며 농민들도 이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축산분야의 인사들과 협조하여 이 사업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요주의 동물약품에 대한 처방권 확보

우리나라에서는 농민들이 동물용 의약품의 구입 시에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임의로 구입하여 자가치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치료의 만연과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수의사회에서는 항생제, 백신, 호르몬제제 등의 생물학적 제제를 요주의동물약품으로 지정하여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제화는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수의학 분야의 심수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생산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들 약품의 임의적인 사용의 규제에 대하여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제화가 가능해지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요주의 동물약품의 처방권에 대한 입법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동물병원의 통합이 이루어져 가축질병의 집단관리체계가 이루어지면 수의사가 대부분의 가축 질병을 관리하고 방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가치료와 항생제의 오남용 문제는 완화될 것이다.

III. 산업동물병원 통합을 위한 준비 사항

산업동물병원의 통합은 각 지역단위로 기존에 개업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계약하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작용은 산업동물 임상 분야의 수의사들이 해결하기에는 준비해야하는 것도 많으며 국가적인 가축질병 방역을 체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수의사회에 준비위원회를 두어 통합을 위한 모델개발, 홍보 및 지원 등을 총체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관련된 정부기관과 축산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제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준비위원회에서는 전국의 가축 사육두수 및 향후 추이 조사, 수의사당 적정 진료 두 수를 설정하여 권역별로 적정 수의사 수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통합작업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각 시도 수의사지부는 각 지역단위에서 통합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사들의 의견

을 조율하고 지역 축산단체들과 유대를 강화하여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농림부는 통합과정이 원활이 이루어지고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 및 정책적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계와 연구기관에 있는 수의사들은 교육학술적인 분야에서 통합된 동물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IV.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

산업동물 병원의 통합 시 우려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될 수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그동안 같은 지역 내에서 다소의 갈등관계에 있었던 병원장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통합에 동참할 수 있느냐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과거에 통합을 논의하던 시대적 배경과는 차이가 많으며 앞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동물병원의 통합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제 각 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산업동물 임상 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원장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여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동물병원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해체되었던 경험에서 보았듯이 통합동물병원의 운영방식과 수입분배 방법 등이 통합에 참여하는 모든 수의사가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통합 실패와 성공 사례를 잘 분석하여 이 시대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산업동물 임상의 침체가 장기화되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 전국의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시는 원장님들이 그동안 일부에서 논의되던 산업동물 병원의 통합을 자발적으로 이루고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가축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동물병원의 운영도 안정될

것이며 수의사들은 축산물 수입자유화의 파고에서도 축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 또는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활발한 논의를 하여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중지를 모아 산업동물 임상의 제2의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